

알짜배기 수능 제품 대박

아이디어 상품 수능 시장 점령

수험생이 줄어들고 수시전형 합격자가 늘어나 수능 제과업계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제과점은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기능성 제품 개발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디어가 빛나는 제과점의 상품을 선별해 소개한다.

글_박소희 기자 · 사진_전문식, 주현진

수능 시험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예년에 비해 수능 제과업계 시장도 축소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험생 전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수시 전형 합격자 또한 크게 늘거나 수능 상품에 대한 절대 수요가 감소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줄어드는 수능 시장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는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반영하듯 수능 시장은 기존에 판매 하던 옛, 찹쌀떡보다 먹기 편하고 맛도 좋은 누가나 캐리멜을 이용한 신세대 옛, 건강 소재를 가미한 찹쌀떡, 쿠키 선물세트, 바구니 세트, 고급 수제 초콜릿 등이 강세를 보였다.



1, 2, 6 녹차, 얼그레이 등 수험생 두뇌를 맑개하는 소재를 넣어 만든 가나슈를 코팅한 초콜릿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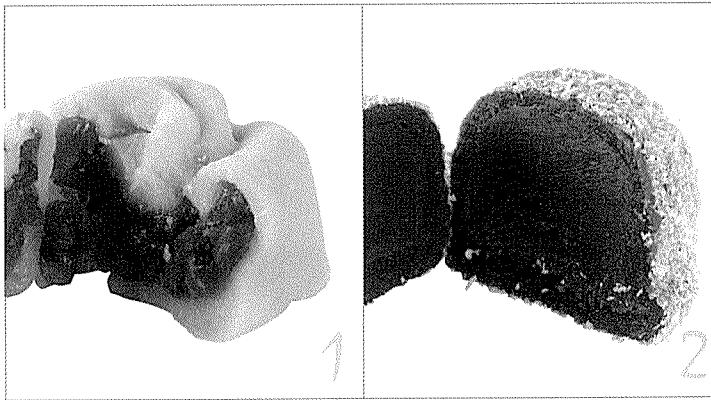
르메이에르과자점

4 '잘 찍으세요'라는 의미의 도끼는 누가를 이용해 만들고 도끼날 부분에 초콜릿을 묻혔다. 도끼, 초콜릿을 한데 포장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빠리장과자점

7 누가를 이에 달라붙지 않음 정도의 굳기로 조절하고 머리에 좋은 피스타치오, 아몬드 등 견과류와 젤리 등을 넣어 쌈하는 맛을 더한 누가 웨하스, 옵스과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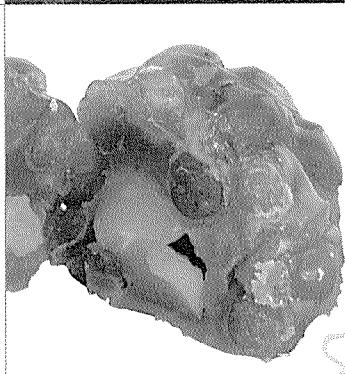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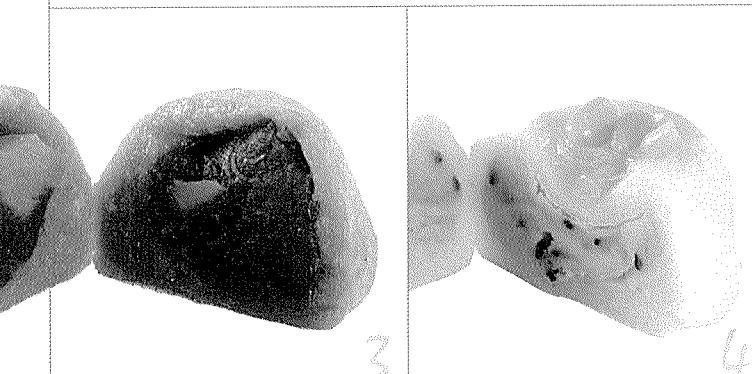
3, 5 쿠키와 초콜릿, 찹쌀떡과 초콜릿 등 수능선물세트에는 초콜릿이 빠지지 않는다. 제과점 흰자 품목 초콜릿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하이몬드과자점





경주 랑콩뜨레과자점 영양과 사랑이 듬뿍 담긴 '수능 칩쌀떡 선물세트'

1년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경주 랑콩뜨레 과자점은 효자상품 수능 칩쌀떡 선물 세트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손수 만들었다. 이 선물세트는 영양과 사랑이 가득한 제품으로 경주를 비롯한 주변 인근에는 소문이 자자하다.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랑콩뜨레과자점 박영태 오너쉐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신제품을 테스트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색깔만 다를 뿐 같은 반죽, 같은 양금을 넣은 칩쌀떡에서 탈피, 다양한 반죽과 충전물을 채워 골라먹는 재미를 더한다. 박영태 오너쉐프는 달지 않고 팔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당도 45° 양금을 직접 만들어 쓰고 있다. 당도 45° 양금을 기본으로 다른 소재를 가미한 기미양금, 녹차양금, 흰양금, 끓인 고운양금 등 갖가지 양금과 반죽의 색깔과 충전물, 토핑들의 색을 맞춰 통일감도 느껴지게 했다. 특히 당도 45° 양금과 끓인 고운 양금에는 수험생들이 칩쌀떡을 먹으면서 목이 메이지 않도록 단감을 썰어 넣은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철저한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정성의 선물 칩쌀떡 선물세트는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선물로 손색이 없다.



1 국화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석류 액기스를 반죽에 넣어 핑크 빛을 내고 단감을 넣은 '당도 45° 양금'을 충전했다.

2 흑미 흑미 가루를 넣은 반죽에 '가나슈'를 넣은 신세대 칩쌀떡.

3 녹차 녹차를 넣은 반죽에 고온양금, 밤, 호두, 계피, 물엿, 물, 생양금을 섞어 만든 '끓인 고운 양금'을 충전했다.

4 짓 반죽에 흰양금, 검은깨, 밤을 섞어 만든 '흰양금'을 싸고 짓을 올려 마무리했다.

5 완두양금 칩쌀떡을 '완두양금'으로 싸고 완두를 올려 마무리했다.

6 팥배기 칩쌀떡을 '팥양금'으로 싸고 팥배기를 올려 마무리했다.

7 완두 반죽에 '완두양금'을 싸고 완두를 올려 마무리했다.

8 밤 칩쌀떡을 흰양금, 규하, 노른자를 섞어 만든 '기미양금'으로 싸고 국산 밤을 올려 마무리했다.

